

The Market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시장 코멘트 | 2024. 11. 7

격렬했던 트럼프 트레이드, 남기고 간 흔적과 힌트는?

투자전략팀 | LS.Research@ls-sec.co.kr 황산해 | sh.hwang@ls-sec.co.kr

예상보다 빨랐던 성적표, 트럼프 트레이드의 시작

개장 직후 한국 증시는 대선 불확실성 해소만을 반영하며 강보합권에서 등락. 코스닥은 잠시나마 약진을 보였던 해리스에 +1% 가까운 상승을 기록. 10시 30분 출구조사 발표를 기점으로 개표 상황은 빠르게 진척을 보이며 트럼프의 스윙스테이트 승전보가 이어짐. 이 시점부터 관련 자산군 및 섹터에서 본격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출현. 코스피, 코스닥 또한 하락세 시작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확보한 트럼프는 오후 들어 모든 스윙 스테이트에 우위를 점하며 폴리마켓 기준 승리 가능성이 90%에 육박. 이후 공화당의 상원 장악 소식과 함께 트럼프는 대선 승리를 선언. 하원 역시 공화당이 우세한 가운데 슈퍼 선거의 해의 마지막 이벤트가 종료. 발간 시점 하원(R 207석, D 188석)

대선을 온몸으로 체감한 한국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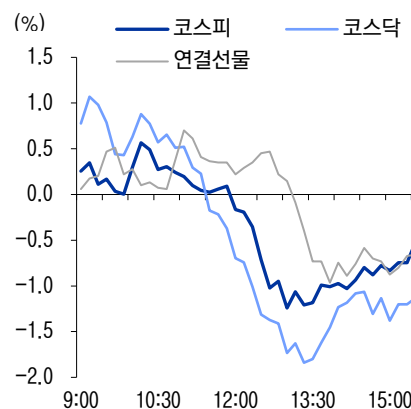
간신히 약보합 마감에 성공한 코스피. 트럼프 트레이드는 뚜렷한 흔적과 힌트를 남김. 조선, 금융, 기계, 방산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2차전지, 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은 약세. 그중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주도한 은행 업종은 트럼프 1기 시절 볼커를 완화를 기억해내며 수혜업종으로 부각. 반면 2차전지는 IRA 세제혜택, 보조금 감소 등이 포함된 트럼프의 아젠다 47 현실화 우려에 급락. 대표적 수출 업종들의 차별화는 크게 미국에 필요한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가능. 조선, 원전, 헬스케어 등 당장의 미국 니즈에 부합하거나 중국 규제에 따른 반사수혜 기대감이 존재하는 영역은 안전.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9.9%) 등도 강세. 반면 자동차, 철강, 화장품 등의 섹터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기대감보다 자국 보호 및 무역규제, 보편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우위로 작용하는 모습

레드 스윙(공화당 장악)의 의미

변수가 없다면 '16년과 동일하게 의회를 장악하며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될 트럼프. Brookings 리서치는 레드 스윙 시나리오 하에서만 \$300~400B 규모의 IRA 세제혜택 예산 감소를 전망. 그만큼 기존 바이든 정부 정책 노선에 변화를 주기에 유리한 환경임은 부정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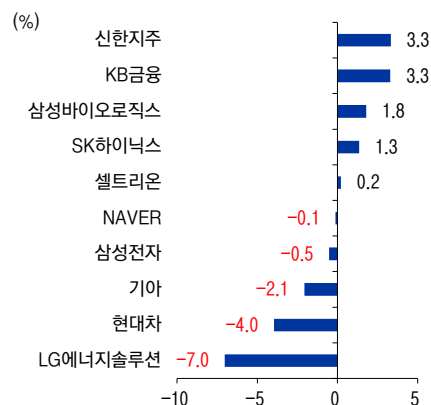
다만 트럼프 1기의 대표적 아젠다였던 반이민정책과 오바마케어 폐지의 사례를 본다면 무조건적 변화가 아닌 '가능성의 유의미한 증가' 정도로 의미를 제한할 필요. 반이민정책과 멕시코 장벽 논쟁은 당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섣달에 돌입하는 이례적 상황을 연출. 또한 오바마케어 폐지는 '25년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 이번 트럼프 2기가 당면한 법인세와 관세 그리고 IRA 축소 이슈 역시 변화를 주기 위해선 노동 계층과 수많은 IRA 수혜 지역을 대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과거 트럼프 케어와는 다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함

그림1 코스닥, 코스피 장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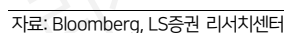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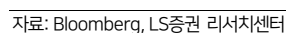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코스피 상위 10개 기업 수익률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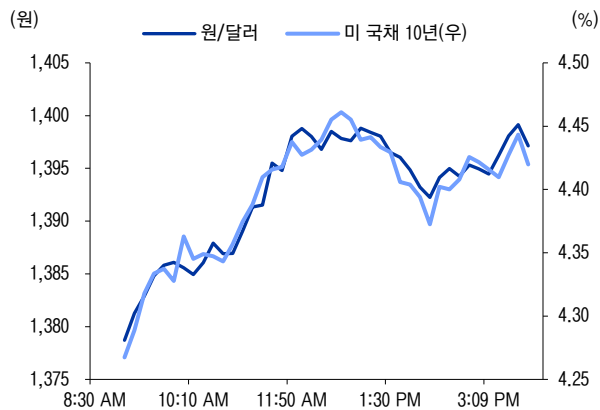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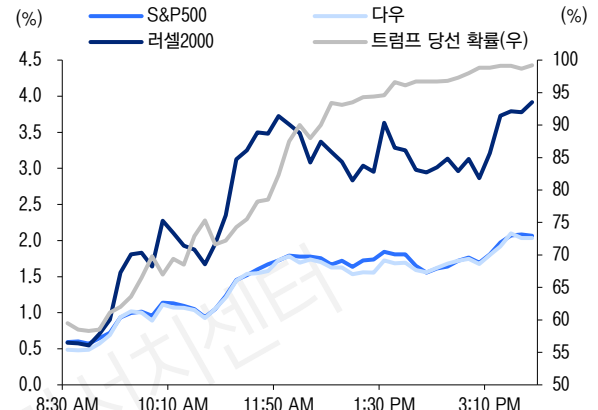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트럼프의 고금리, 강달러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미 선물 추이, 관세와 법인세로 보호받게 될 중소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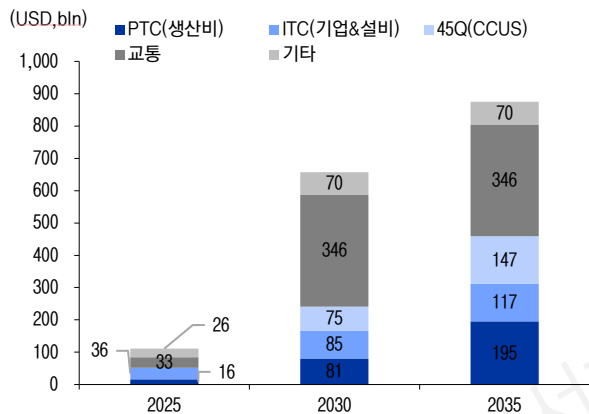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미국 상하원 구성 변화, 인사와 예산을 쥐게 된 트럼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2027~
상원	D	R	R	D	D	D	D	R	R	R	D	D	R	?
하원	R	R	R	D	D	R	R	R	R	D	D	R	R	?
대통령	R	R	R	R	D	D	D	D	R	R	D	D	R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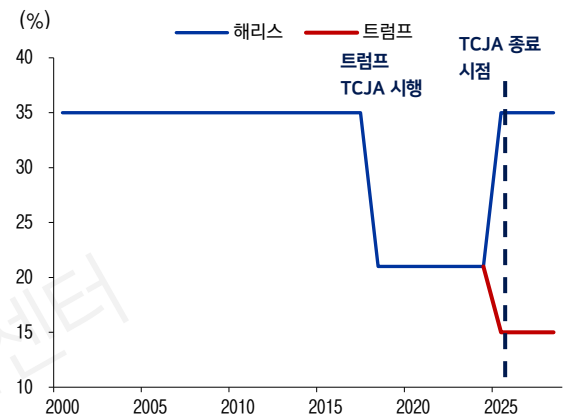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IRA 세제혜택으로 인한 재정지출 규모



자료: Brookings,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법인세 추이 및 당선 공약 별 방향성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공화당 Vs 민주당 주요 정책 비교

구분		공화당 (트럼프)	민주당 (바이든→해리스)
대중국 전략 (무역·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보편·상호주의 관세, 중국 최고 60% •중국 최혜국대우(MFN) 철폐 •수출 통제 범위 확대 (금융투자, 지식재산, 인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리스팅(De-Risking) : 특정 부문 위험요소만 제거 •대중 현행 관세 유지 •공급망 전환·안정화 우선 •수출통제 강화 (첨단분야 한정, 동맹 동참)
공급망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쇼어링 위주 •자국 중심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쇼어링 + 니어·프렌드쇼어링 •신뢰 동맹·파트너 역할 증대
통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간(Bi-lateral) •보호무역주의 •보복관세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간(Multi-lateral)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관세보다 간접적 제재수단 선호
환경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석연료 산업 부흥 •기후변화 회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탄소·그린전환 •기후변화 적극 대응
제조업 보조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IPS 보조금 유지 •IRA 생산 인센티브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IPS 보조금 확대 •IRA 생산 인센티브 유지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RA 전기차 보조금 유지
		(공통)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국내 실물 경기 부양	
외교·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견제 우선 •러·우 전쟁 단기 종결 •우크라이나 일부 NATO 편입 •고립주의(Isolationism) •동맹 비용·역할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및 러시아 견제 •러·우 전쟁 장기 지속 •우크라이나 NATO 편입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동맹 연계 협력
국내 경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출 감소 •전반적 감세,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출 확대 •고소득층, 기업 세율 인상
세금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율 인하(21% → 15~20%) •개인소득세 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율 인상(21% → 28%) •고소득자 증세
사회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디케어 축소 •불법 이민자 중심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보험 확대 •이민 절차 간소화

자료: KIET,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황산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